

인도 총선에서의 전략적 투표: 1996년부터 2004년 선거까지 선거구 결과분석*

최정욱 | 간국대학교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실제로 대다수의 인도 투표 행태나 선거 연구자들은 인도인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이다. 우선 그들은 인도의 정당체계가 전략적 투표와 듀베르제의 법칙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 다당제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다당제적 파편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무수히 많은 태생적인 집단의 정치화 혹은 특수이익집단화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인도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략적 투표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1996년,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4년에 있는 가장 최근의 네 번의 선거결과 자료를 가지고 3위 대 2위 득표비(SF Ratio)에 기반하여 새로이 개발한 변형 지표 두 개를 가지고 인도의 전략적 투표 현상에 대한 증거자료 모색과 분석을 시도한다.

주제어: 전략적 투표, 듀베르제 법칙, 정당체계, 인도, 선거, 3위 대 2위 득표 비율

* 본 논문은 2007년도 포스코 청암재단의 아시아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하였음. 연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선거 자료 정리 작업을 도와준 박지은, 서경원, 김민선, 허다영 학생과 인도 현지조사 때에 신세를 진 김도영 교수와 Kapil Girdhar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I. 서 론

이 연구에서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 영역에서 인도인들이 어떻게 행위하는지를 비교정치학에서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전략적 투표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전략적 투표라고 함은 투표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선호도만을 참고하여 제일 선호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나 정당이 선거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다면 다른 차선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전략적 투표는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표방지심리와 비슷하고 또한 정당이론에서 흔히 나오는 듀베르제의 심리적인 요소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투표는 소선거구제 아래서 예상득표율이 1위인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제일 선호하는 후보에게 그냥 표를 던지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고 이 경우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2위가 예상이 되는 후보의 지지자들한테도 전략적 투표는 거의 무의미하다. 2위가 예상이 되는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가 1위 예상자와 표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여전히 실제 선거에서 군소후보 지지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득표율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2위 예상후보자를 버리고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제3위 예상후보나 그 보다 못한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의 경우에는 전략적 투표를 할 인센티브가 충분하다. 단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이러한 군소후보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런 후보의 지지자들은 당선가능성이 있는 차선의 후보자에게 표를 이전시켜 줄 것으로 전략적 투표이론은 본다.

이렇게 간단한 전략적 투표가 비교정치학에서 많은 논란이 된 것은 전략

적 투표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서 한 나라의 정당체계(party system)와 국정 운영 방식(governance)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만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일부로서 전략적 투표이론이 개개인으로서의 인간 행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전략적 투표는 투표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 투표자 개개인이 선거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후보자들에 대한 일관된(transitive) 선호도 구조를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최소한의 의미로 규정된 합리성만 아니라 나아가 전략적 투표는 도구적 합리성, 즉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계산능력을 전제로 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표를 통하여 어떤 후보를 당선시킨다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 이러한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후보들의 예상 득표율, 그리고 자신의 투표가 최종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도인들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인도인의 선거행태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대체로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인도에서는 비이성적인(irrational)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리하여 서구의 합리적인 개인주의 시각으로는 인도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적어도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인도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것이다. 심지어 지금은 고인이 된 인도 전문 연구자들 중의 한 명인 와이너(Weiner, 1957: 258)도 인도인들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선거에서의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하거나 못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인도인들이, 그 중에 특히 힌두교들이 도구적인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인도인들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인식은 위에서 전략적 투표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의문시한다. 이것은 곧 인도정치에서 전략적 투표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또한 라이커(Riker, 1976)가 오래 전에 와이너(Weiner)를 비판한 이유이기도 하다.¹

또한 최근 인도 국내의 사회과학 문헌에서 인도인의 정치행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설명은 사회학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투표(communal voting) 이론인데, 이 이론 역시 전략적 투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에는 국민의회당(Congress)의 일당 독주시대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완전히 종식되면서 다당제적인 정당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² 뉴델리에 있는 출판사들을 통하여 연구결과를 주로 발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도 국내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적인 흐름은 특수주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집단들이 정치화된 탓이라고 본다. 이러한 특수집단(special interest groups 혹은 sectarianism)으로는 카스트 신분집단, 힌두교, 이슬람 등의 종교집단, 언어 집단 등이 포함된다. 이 집단들의 특징은 구성원들의 소속이 모두다 태생적인(ascriptive)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특수주의적인 투표설이 맞다면 인도에서는 전략적 투표가 미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개인의 선택보다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집단적인 소속감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 하면 집단특수주의적인 정치분열이 팽배하는 경우 강력한 집단의식으로 인하여 투표자는 지지후보의 저조한 당선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선호도를 선거에서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소속집단과의 일체감을 추구할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도의 경우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바탕을 둔 전략적 투표 현상보다는 집단주의적인 몰표현상(bloc voting)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³

인도 내의 정치학자들이 아닌 미국의 정치학자들의 연구 중 칩버(Chibber)와 페트로치(Petrocik)(1989)도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표면상으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면 다당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구나 그 이하인 투표소 단위 지역으로 내려가면 다당제적인 요소는

-
1. 하지만 라이커 역시 비록 이유는 다르지만 인도인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2. 물론 인도에는 처음부터 다당제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즉, 와이너(1957)의 경우 인도의 초기 선거를 분석하면서 인도의 정당체계를 단일지배정당체계보다는 다당제라고 보고 있다.
 3. 이러한 집단주의적인 투표성향을 함축하는 인도학계의 용어가 “vote bank”이다.

사라지게 된다고 본다. 하위 지방 단위에서는 오히려 특정 공동체(community)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몰표가 보인다. 즉, 인도에서는 사회경제학적인 집단의 특성과 투표행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규모에서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 수준에서 관찰되는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특정 사회경제적인 속성과 투표행태 간에 연관관계를 찾으려고 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소규모 지역단위로 내려가면 그러한 연관관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이슬람교도이라도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표행태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취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슬람과 정당 간의 밀접한 연관 관계는 보이지 않지만 사회 기저에는 그러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공동체가 특정지역에 몰려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좁은 지역의 경우 양당제에 가까운 정당체계를 보일 것이지만, 전략적 투표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보기에 하위지역의 경우 정당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전략적 투표가 진행되어 그 결과 정당의 수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개별 투표자의 전략적 투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사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집단의 특수이익에 집착하여 획일적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위단위에서 소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이질성이 심할지라도 하위단위에서는 사회적 이질성이 약하여 소수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정당선호도가 단순한 것에 기인한다.

이와는 반대로 소선거구제는 전략적 투표를 낳는다는 기본적인 법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객관적인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의 영향 때문에 투표자들은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소선거구제 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다당제와 일상적으로 언급되는 사회학적인 기준에 따른 투표현상을 감안하면 전략적 투표이론은 인도에서는 적용이 힘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라는 것이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관찰되고 인도에서는 안 되면 그것은 타당성을 지니기 힘들다. 제도의 효과는 그 제도를 수용하는 행위자들의 개별특수적인 속성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편적인 이론이

맞는다면 인도 선거에서도 역시 소선거구제 때문에 선호도가 편향돼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인 설명이냐 아니면 정치제도적인 설명이냐에 따라서 인도인들의 전략적 투표에 대해서 상반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선거구 단위 선거결과를 취합한 집합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제도적인 여건이 인도인들의 전략적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의 영향 때문에 여전히 전략적 투표가 의미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선거인 2004년 총선거와 그 이전의 3번 선거(1996, 1998, 1999년 총선거)에서의 투표결과를 가지고 인도인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해 볼 것이다.

1996년, 1998년, 1999년, 2004년 선거를 택한 이유는 첫째로 다당제가 확연하게 나타난 시기의 선거라는 것, 그리하여 전략적 투표가 일어나기 힘들 것 같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 투표의 흔적이 보인다면 오히려 전략적 투표 존재를 증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세 번의 연속적인 선거에서 선거체계가 불변하고 선거구의 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가까운 기간에 반복해서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관찰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략적 투표가 일어난다면 정보의 축적으로 인해서 세 번째 선거, 즉 1999년 선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치른 2004년 선거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다시 완화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인도선거관리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India)가 543개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4번의 선거에 걸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II. 이론과 방법

집합자료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분석하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핵심은 집합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선호도와 투표결과를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흔히 하위 단위에서 양당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전략적 투표 혹은 듀베르제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별 의문 없이 바로 추정한다. 하지만 매크로 단위인 전국 수준에서 다당제가 관찰된다고 하여 마이크로인 하위 지역 단위에서 전략적 투표가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듯이 지역구에서 양당제가 관찰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것이 전략적 투표 덕분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당제가 하위단위에서 관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취버와 페트로치(1989)이 말하고 있듯이 해당지역에 몰려 사는 몇 안 되는 특정 집단의 특수이익의 집단적인 표시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인지를 구별하여야만 한다. 또한 명목상 후보자가 2명에 불과하고 그 결과 정당체계가 양당제처럼 보이는 경우에 우리는 전략적 투표 여부를 논의할 여지 자체가 없어지고 만다. 전략적 투표를 논의 하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군소후보군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라이커(1976)의 용어로 말하자면, 군소정당의 경우 탄생이 없다면 사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합 자료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콕스(Cox, 1997)의 2위와 3위의 득표 비율인 3위대2위득표비(SF Ratio)가 있다. 이것은 인도에서와 같이 소선거구제에서의 선거의 경우, 3위를 한 후보(second loser)의 득표율에다 2위 후보(first loser)의 득표율을 나눈 값이다. 콕스에 따르면 전략적 투표를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 이른바 듀베르제의 균형이 형성되고 이 경우 2위와 3위 간에 표차가 많이 나고 3위의 득표율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3위대2위득표비는 0에 가까운 값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3위 후보 지지자들이 선호도대로 투표에 임하였다면 2위 후보와 3위 후보에 대한 선호도 비율에 따라서 3위대2위득표비가 정해지겠지만 대체로 둘 간 차이가 없고 균형이 완벽하게 잡힌다면 3위대2위득표비는 1에 가까울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비듀베르제의 균형이다.

3위대2위득표비의 경우 우리는 투표자의 선호도 분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나 있는 선거결과만 가지고 역으로 선호도에 따른 투표 여부를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집합적인

선거결과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분석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이다. 정당체제와 3위대2위득표비를 바로 연결하는 디와카르(Diwakar)의 글(2007)과 달리,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3위대2위득표비를 변형하여 사용할 것이다. 즉, 선거결과 나타난 2위와 3위 간의 표차를 지수화한 3위대2위득표비 값만을 가지고 전략적 투표 정도를 판별하기 힘들다고 봐서 1위와 2위 간의 표 차이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한다.⁴ 그 이유는 1위와 2위 사이에는 표차가 없는데 2위와 3위 사이에 유독 표차가 심할 경우에만 우리는 전략적 투표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즉, 전략적 투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선호도의 표로의 전환 비율이 1위, 2위 그리고 3위 후보 지지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투표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1위와 2위 후보자 지지자들에 비해서 유독 3위 후보자 지지자들에게만 선호도의 표로의 전환비율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이것은 1위와 2위의 표차에 비해서 2위와 3위의 표차를 더욱 크게 벌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위와 3위 사이의 표차만 살펴보고 이것을 1위와 2위의 표차와 비교하지 않는 경우(3위의 투표율이 0이 아닌 경우에는) 2위와 3위 사이에 관찰되는 투표율의 차이가 크다 혹은 작다고 할 기준이 없을 것이다. 2위와 3위의 표차가 커서 3위대2위득표비의 값이 작고 이로 인하여 마치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한 경우로 보일지라도 1위와 2위의 표차 역시 많이 난다면 우리는 전략적 투표가 많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 경우에 3위의 지지자들이 유독 1위 후보에게만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면 2위와 3위의 큰 표차는 전략적 투표의 결과라기보다는 원래 선호도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3위 후보 지지자가 전략적 투표를 할 인센티브가 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위 지지자의 경우 자신의 표를 전략적으로 2위에게 이전하더라도 1위와의 경쟁 구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략적

4. 3위대2위득표비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분석하는 것에 따르는 문제점에 관한 논의는 Cox(2001) 참조.

5. 일당지배 혹은 일당우위의 경우 소수정당의 지지자들은 차선으로 선호하는 정당이 2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굳이 전략적 투표를 통하여 2위 정당에 투표할 인센티브가 없다.

〈표 1〉 후보 간 득표율 차이와 전략적 투표 개연성

	작음(≤ 10)	2~3위 차	큼(≥ 20)
큼(≥ 20)	낮음(III)		낮음(I)
1~2위 차			
작음(≤ 10)	낮음(III)		높음(IV)

투표를 하든 아니하든 사표가 된다.

종합하면, 기존의 3위대2위득표비와 같이 2위와 3위 간의 차이만 보고서 전략적 투표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략적 투표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려면 2위와 3위 간의 차이를 1위와 2위 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비교 검토하여야만 한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될 것이다. 2위와 3위 간의 표차가 크고 그 결과 3위대2위득표비의 값이 작다고 할지라도 1위와 2위 간의 표차에 따라서 전략적 투표 여부가 다르게 판별될 수 있다.

첫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에 2위와 3위의 표차가 크지만(여기서는 크다는 의미를 논의의 편의상 20%이상으로 상정하는데) 1위와 2위의 표차 역시 크다면(표에서 영역 I의 경우) 우리는 전략적 투표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예를 보면, 3명의 후보만 존재한다고 할 때 1위의 득표율이 65%이고 2위의 득표율이 30%이고 3위의 득표율이 5%정도인 경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2위와 3위의 표차만 보면 전략적 투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위와 2위의 표차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

둘째로 만약에 2위와 3위의 표차가 크고 그와 동시에 1위와 2위의 표차가 그에 비해서 유독 작다면(여기서는 작다는 의미를 편의상 10% 이하로 이해하는데 표에서는 영역 IV의 경우가 해당한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전략적 투표에 따른 것이라고 역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를 들면, 1위는 50%를 2위는 45%를 3위는 5%를 얻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2위와 3위의 표차가 작고 1위와 2위의 표차가 큰 경우에는(표에서 영역 II의 경우) 사실상 일당지배적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한 예로는 2위와 3위가 각각 20%, 15%를 얻고 1위는 나머지 65%를 얻는 경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2위와 3위의 표차가 작고 1위와 2위의 표차 역시 작다면(표에서 영역 III의 경우) 이것은 1, 2, 3위 공히 비슷한 표를 획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당제적인 속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서 이런 경우에도 전략적 투표를 행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것은 카스가 말하는 비듀베르제 균형에 가까울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1위 35%, 2위가 33%, 3위가 32%를 얻는 경우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에 카스(1997)가 영국의 선거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1위와 2위의 표 차이 혹은 당선 초과 득표치(margin of victory)를 사용한 방식과 차이가 난다. 그의 모델에서는 당선초과득표치가 전략적 투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3위대 2위득표비와 더불어 당선 초과 득표치를 다만 전략적 투표를 판별하는 지표로 사용할 뿐이다. 또한 그는 당선 초과 득표치를 계산할 때 특정 선거 이전 선거에서의 값을 가지고 구한 다음에 그로 인하여 바로 다음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동일 선거에서의 당선 초과 득표치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추정할 뿐이다.

집합적 자료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시험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있다. 이것 역시 3위대 2위득표비를 다르게 변형한 것이다. 그것은 선거구에 따라서 동일 정당이 1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2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3위를 하였을 때 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동일 정당이 1위를 하였을 때 선거구 단위 평균득표율과 2위 일 때의 평균득표율, 그리고 3위일 때의 평균득표율을 계산하여 1위와 2위 그리고 3위 간에 격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본다. 전략적 투표이론이 맞다면 1위와 2위였을 때의 차이보다 유독 2위와 3위 간의 격차가 클 것이다. 이것은 앞의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정당의 득표율을 선거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정당과 관련한 변수들은 통제되었지만 지역구의 차이에 따른 변수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⁶ 특히 지역구별로 어떤 정당이 1위를 하더라도 그와 경쟁하는 정당은 선거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의 수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변수들은 어느 정도 통제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에서의 득표율 순위 그 자체도 어떤 의미를 지닌다. 즉, 경쟁정당이 어떤 정당이나나 상관없이 등수 그 자체가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은 전략적 투표를 암시하는 것이다.

III. 선거결과와 전략적 투표의 검증

1996년에서 2004년까지 총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 모두 다 선거구의 총수가 543개로 동일하다. 그 바로 직전 선거인 1991년 선거에서는 선거구의 수가 521개였다. 따라서 이 네 개의 선거구의 선거 결과는 선거구별로 비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⁷ 우선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한 유효정당수를 살펴보면 선거구별로 보나 전국적으로 보나 주 단위 별로 보나 인도는 네 개 선거 모두다 다당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구별로 볼 때 그렇게 심한 다당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아니라 삼당체제에 가까운 정당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다당제는 일반적으로는 전략적 투표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미하게 일어난 결과 발생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개별 지역구에서의 유효정당수를 전국적으로 분석할 때, 상당한 수의 지역구에서 2.5나 3 이상을 넘게 되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듀베르제의 법칙이 인도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Diwakar, 2007: 548). 이러한 결론은 듀베르제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원리 중 하나인 전략적 투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회의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

-
6. 인도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선거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차별 받는 소수집단인 불가촉천민(Schedule Castes)과 부족민들(Scheduled Tribes)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하여 그들 출신의 후보만 입후보할 수 있는 특별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전략적 투표를 검증할 수 있지만(Chandra, 2004; Rudolph and Rudolph, 1987), 여기서는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7. 일부 지역의 경우 새로운 주의 신설과 그로 인한 주의 분할로 인하여 선거구 주별 분류가 변경된 경우가 있다.

〈표 2〉 득표율로 본 선거구 유효정당수(N)와 3위대2위득표비(SF Ratio)

	1996	1998	1999	2004
선거구 단위 N평균	3.05	2.69	2.64	2.76
SF Ratio 평균	0.43	0.39	0.33	0.32
SF Ratio≤0.2	29.8%	37.2%	49%	50.8
SF Ratio 왜도	0.37	0.46	0.72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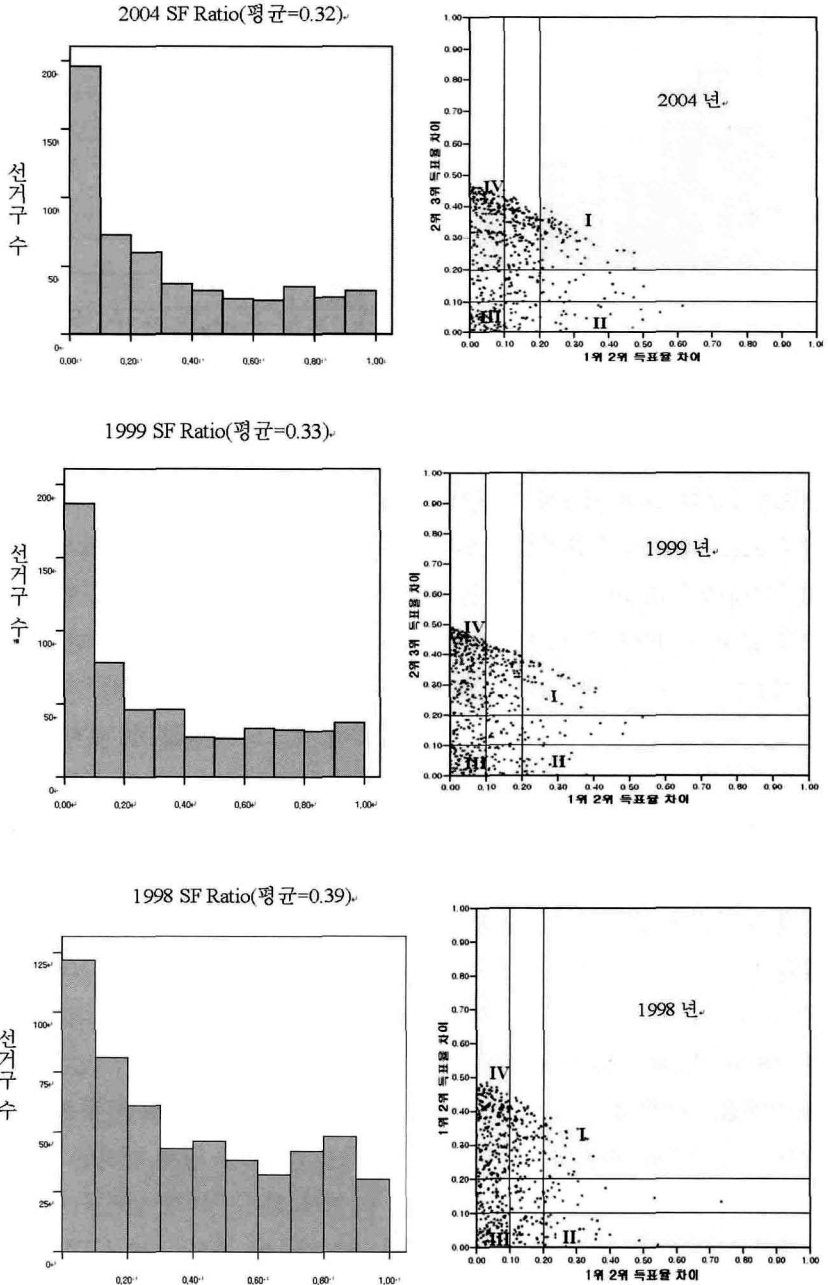
주: 유효정당수 N은 지역구별로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로 계산한 값이다. 3위대2위득표비 값이 0.2보다 작을 때(이 수치는 자의적이지만) 우리는 전략적 투표를 암시할 정도로 그 비율이 작다고 볼 수 있다. 왜도가 0보다 크면 클수록 왼쪽으로, 즉 3위대2위득표비가 두베르제의 균형을 암시하는 0의 값 쪽으로 치우쳐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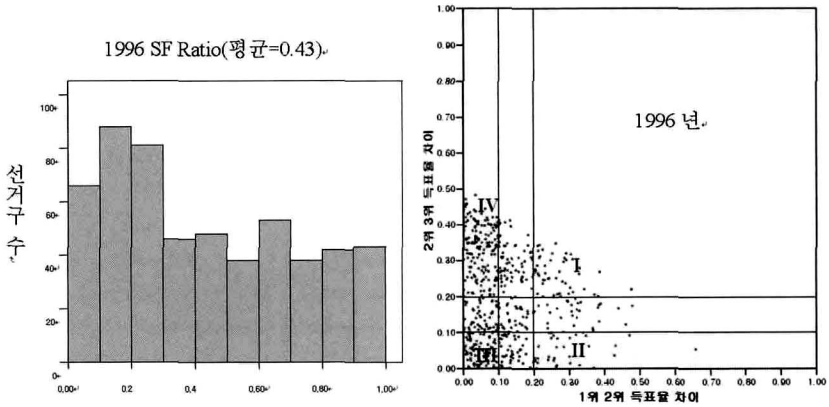
기 힘들다. 하지만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는 또한 완전히 회의론적인 결론에만 도달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우선 각스의 방식대로 선거구별 3위대2위득표비의 분포도를 보면, 매년 선거마다 전략적으로 투표한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들지만, 최소한 우리는 전략적 투표가 매년 선거를 거치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⁸ 우선 그림 1에서 왼쪽 그래프들을 대충 눈으로 훑어보아도 3위대2위득표비의 분포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1996년도의 경우 낮았지만,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4년을 거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보다 많이 시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즉, 3위대2위득표비의 하위범주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상위 범주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지표인 3위대2위득표비의 평균값, 3위대2위득표비 값 중 0.2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3위대2위득표비의 왜도(skewness)값의 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세 지표 모두 다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3위대2위득표비 값이 0.2보다 작을 때(이 수치는 자의적이지만) 우리는 전략적 투표를 암시할 정도로 그 비율이 작다고 볼 수 있고,

8. 주 별로 나누어서 보면, 20개 이상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12개 대규모 주 중에서 9개 주는 대체로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कैल리, 구자라뜨, 라자스만 세 개의 주만 전반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3위대2위득표비가 분포되어 있다.

그림 1. 3위대2위득표비(SF ratio)와 1위 2위 득표율 차와 2위 3위 득표율차이 분포도(1996-2004)





주: 각 연도별 오른쪽 도면에서 I, II, III, IV영역은 가운데 5개 십자모양을 형성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각 숫자가 놓인 영역을 나타낸다.

왜도가 0보다 크면 클수록 왼쪽으로, 즉, 두베르제의 균형을 암시하는 0의 값 쪽으로 3위대2위득표비가 치우쳐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히 3위대2위득표비만을 가지고 볼 때, 세 가지 다른 지표 모두가 네 번의 선거에 걸쳐서 전략적 투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각스의 지표인 3위대2위득표비 값만을 볼 때, 네 번의 선거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전략적 투표가 점점 더 강화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이것은 2위와 3위의 득표율 차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올바르게 않은 추론이다. 만약에 앞의 절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2위와 3위의 표차이만이 아니라 그것을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약간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2위대3위 득표율 차이를 1위대2위의 득표율 차이와 비교한 결과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이것을 보다 보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의 오른쪽 분포도들이다. 앞의 절의 <표 1>에서 우리는 1위와 2위 표 차이와 2위와 3위 표 차이를 가지고 전략적 투표를 판별할 수 있는 4개의 영역을 나누었다. <표 3>에서 연도 옆의 첫 번째 열은 전략적 투표를 암시하는 선거구에 해당하는 IV 영역에 속하는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 543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이고 두 번째 열은 543개 선거구 중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였다고 보기 힘든 I, II, III 영역에 속하는 선거구를 전부 합한 비율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은 전략적 투표인지 아닌지 판단하

기 힘든 선거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변화 추세를 보기 이전에, <표 3>에서 각 연도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1996년의 경우에만 전략적 투표의 비율보다는 비전략적 투표의 비율이 높다. 나머지 세 번의 선거에서는 모두 전략적 투표의 비율이 비전략적 투표의 비율보다 높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까지 합쳐서 보면, 전체 선거구 중에서 전략적 투표를 암시하는 선거구의 비중은 4번의 선거구 모두에서 과반이 넘지 않는다. 1996년의 경우에는 1/3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볼 때는 전반적으로 4번의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를 암시하는 선거구가 지배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발견은 분석수준을 달리하였지만, 영국이나 독일의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사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Cox, 1997: 80-85).

이제 연도별 변화 추세를 보면, 우리는 전략적 투표에 대한 의미 있는 발견을 할 수 있다. 3위대2위득표비와 마찬가지로 IV의 영역(전략적 투표 영역)은 다른 연도에 비하여 1996년에는 29.1% 정도로 낮다. 하지만 3위대2위 득표비와 달리, 이 값은 1998년, 1999년을 거치면서 증가하다가 2004년에 감소한다. 즉, 선거구 수준에서 따져볼 때 전략적 투표율이 1996년도에 제일 작고 그 이후 줄곧 증가하다가 2004년도에 다시 감소하였다. 이것은 <표 3>에 근거하여 단정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선거구들인 I, II, III 영역의 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6년도에는 거의 30%정도가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았다가 1998년과 1999년도에는 전략적 투표를 하지

<표 3> 1위 2위 득표율 차이와 비교한 2위 3위 득표율 차이 영역 비율

	전략적 투표(IV)	비 전략투표(I+II+III)	나머지불확실영역	합(%)
2004	33.3	26.2 (=10.7+3.5+12.0)	40.5	100
1999	41.1	22.1 (=6.3+3.3+12.5)	36.8	100
1998	38.3	23.0 (=5.5+5.2+12.3)	38.7	100
1996	29.1	29.8 (=8.8+6.1+14.9)	41.1	100

*주: I, II, III, IV 영역은 위 <표 1>에서 논의한 영역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의 각 연도별 오른쪽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나머지 불확실 영역은 가운데 십자를 그리는 5개 영역을 의미한다.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비율이 낮아졌다가 2004년도에는 또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 추세가 반드시 전략적 투표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거나 전략적 투표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변화추세가 다른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에서 사회경제적 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개방 개혁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고정변수로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특이한 변화 추세를 설명하기 힘들다. 만약에 이러한 고정변수가 위에서 언급한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그 변수가 기존의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거나 고정표를 와해하여 아마도 전략적 투표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인 변수는 선호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변수로는 위에서의 투표행태의 변화 양상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투표행태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심하였던 1990년대 인도의 상황 속에서 짧은 기간에 반복적인 선거를 거치면서 개별 선거구에서 개별 정당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이 보다 성숙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선거를 치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이전 선거와 달리 5년이 지난 다음에 치르진 2004년도 선거에서 전략적 투표의 영역(영역 IV)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전략적 투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우리는 앞에서 개별 정당이 선거구에서 1위, 2위 그리고 3위였을 때 얻는 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당이 선거구에서 차지하는 등수를 가지고 볼 때 우리는 3위를 한 정당이 1위와 2위를 한 정당보다 선호도의 득표율로의 전환에서 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곧 1위와 2위의 차이보다 2위와 3위의 차이가 유별나게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은 상당한 숫자의 선거구에서 1

위도 해보고 2위도 해보고 그리고 3위도 해본 어떤 정당을 골라내어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선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3위만 주로 하는 정당이거나 1위만 주로 하는 정당 혹은 2위만 주로 하는 정당은 분석가치가 없다. 또한 우리는 한 번의 선거에서 1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네 번의 선거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4번 선거 모두에서 의미 있게 상당한 수의 선거구에서 1위, 2위 그리고 3위를 한 정당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하는 정당은 인도인민당(BJP), 인도국민회의당(INC), 사회당(SP) 이렇게 3개밖에 없다. 다수당(BSP)과 인민당(JD)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으로 볼 때, 2004년과 1996년에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선거에서는 의미가 없다. 나머지 정당들은 4번의 선거 모두에서 1위나 2위 혹은 3위 자리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골라낸 세 개의 정당이 1위, 2위, 3위였을 때 선거구 득표율을 계산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마지막 열의 비율이 중요한 지표인데 이것은 1위와 2위였을 때의 차이를 2위와 3위였을 때의 차이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1보다 작을 때 특정 정당이 1위나 2위보다는 3위의 위치에 놓임으로써 득표에서 불이익을 당하였음을 시사하고 또 그 값이 작을수록 불이익을 당한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세 개 정당 모두다 4번의 선거에 걸쳐서 1위와 2위에서의 표차보다 2위와 3위에서의 표차가 더 크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상대적인 차이는 3위에 있는 경우에 뭔가 표를 얻는데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것은 인도국민회의당의 경우 눈에 두드러지고 사회당의 경우 제일 약하며 인도인민당은 중간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 개의 정당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 정당인 사회당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당이고 포괄정당(catch-all party)을 표방하는 인도국민회의가 전략적 투표의 최대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표 4>를 통하여 전략적 투표의 존재를 세 개의 정당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1위와 2위의 표차를 감안한 3위대2위득표비를 가지고 앞에서 분석한 결과인 전략적 투표의 변화의 추이는 세 개 정당 모두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즉, 1996, 1998, 1999년을 거치면서 전략

〈표 4〉 정당의 선거구에서의 순위별 득표율과 1위2위 차와 2위3위 차의 비율

		1위 득표율	2위 득표율	3위 득표율	비율=(1-2):(2-3)
INC	2004	48.4(145)	37.7(171)	13.3(46)	.44(=10.7:24.4)
	1999	47.4(114)	39.8(216)	15.1(69)	.31(=7.6:24.7)
	1998	48.2(141)	37.4(159)	12.6(88)	.44(=10.8:24.8)
	1996	45.1(140)	33.4(234)	14.9(56)	.63(=11.7:18.5)
BJP	2004	47.3(138)	34.7(133)	16.8(71)	.70(=12.6:17.9)
	1999	48.3(182)	35.5(112)	16.7(39)	.68(=12.8:18.8)
	1998	45.7(182)	37.0(125)	14.6(75)	.39(=8.7:22.4)
	1996	43.4(161)	33.1(99)	11.8(128)	.48(=10.3:21.3)
SP	2004	38.0(36)	27.3(22)	11.4(33)	.67(=10.7:15.9)
	1999	36.2(26)	28.4(23)	11.7(28)	.47(=7.8:16.7)
	1998	39.0(20)	32.5(43)	19.3(21)	.49(=6.5:13.2)
	1996	37.1(17)	28.0(33)	15.1(20)	.71(=9.1:12.9)

주: 1, 2, 3위 득표율 하단의 괄호 속의 수치는 모두다 해당 선거구의 수를 의미한다. 1, 2, 3위 득표율은 모두 다 개별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평균한 값이다. 마지막 열의 비율은 1위와 2위였을 때의 차이를 2위와 3위였을 때의 차이로 나눈 값이다.

적 투표율은 점차 증가하다가 2004년에 와서 이러한 추세가 단절되는데, 〈표 4〉에서 보면 이것은 인도국민의회당과 사회당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인민당의 경우 이미 전략적 투표는 1996년보다는 1998년에 강화되다가 1999년부터 이미 완화되고 이것은 2004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뒤집어 말하면 〈표 4〉에 따르면, 다른 정당과 달리, 인도인민당의 경우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는 지지자가 1999년부터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 상징들로 가득한 인도에서 합리적인 서구인들만 할 것 같은 전략적 투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선거구 단위의 선거결과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물론 합리성 자체가 서구인만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인도에서의 전략적 투표는 당연히 존재하며 따라서 그러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도의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보편이론의 서구편향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전

략적 투표현상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인도 투표 행태나 선거 연구자들은 인도인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이다. 우선 그들은 인도의 정당체계가 전략적 투표와 듀베르제의 법칙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나 다당제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다당제적 파편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사회경제적 집단의 정치화 혹은 특수이익집단화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인도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략적 투표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1996년, 1998년, 1999년 그리고 2004년에 있는 가장 최근 네 번의 선거결과 자료를 가지고 3위대2위득표비(SF Ratio)와 그와 유사한 발상에서 출발하여 새로 개발한 지표 두 개를 가지고 인도의 전략적 투표 현상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우선 연구대상이 된 네 번의 선거에서 단정적으로 전략적 투표가 일어났다고 말 할 수 있는 선거구의 비중이 전체 543개 중에서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인도에서는 전략적 투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 선거구별 평균 유효정당수도 다당제적인 속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와 2위의 표차와 2위와 3위의 표차를 서로 비교하여 나온 영역들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4개 영역을 살펴보면, 1996년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투표의 영역이 비전략적 투표의 영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연도별 영역의 비교 수치보다도 더욱 우리로 하여금 인도의 전략적 투표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하게 만드는 것은 4번의 선거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추세이다. 즉, 전략적 투표의 경향을 볼 때 짧은 기간에 연속으로 치러진 세 번의 선거, 즉 1996, 1998, 그리고 1999년에는 시간이 갈수록 전략적 투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앞 선거와 상당히 간격을 두고 치러진 2004년 선거에서는 누그러지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3위대2위득표비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으며 이글에서 새로이 도입한 2위와 3위의 차이를 1위와 2위의 차이와 비교한 지표를 통하여 볼 때만 확인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수의 개별선거구에서 1위도 해보고 2위도 해보고 3위도 해본 정당들을 골라내어 이들이 등위에 따라서 얻는 득표율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다른 정당에 비해서 인도국민회의당이 전략적 투표로 인하여 제일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도국민회의당을 대체하여 투표할 정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당에 대한 투표자의 선호도가 강렬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인도에서 전략적 투표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인도인들이 전부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략적 투표를 시사하는 선거구와 그렇지 않은 선거구를 구분하면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는 쪽의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예에 비추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어떤 나라에서도 전략적 투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략적 투표율이 그 반대의 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저자가 아는 한 거의 전부이다. 그만큼 전략적 투표 못지않게 선호도와 그에 따른 투표가 선거결과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선호도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략적 투표 현상을 논한다고 하여 사회경제적 변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인의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자가 그 선호도대로 투표하는 정도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또한 사회경제적 변수만으로는 선거결과와 정당체계의 형성을 전부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투표도 함께 고려해야 전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이유이다.

여전히 남는 문제는 전략적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정당체계의 설명에 기여하는지 등이다. 이것은 개별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서만 답할 수 있다. 이것은 추가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고경희. 2001. 「인도의 사회균열과 정당체계: 포괄정당의 쇠퇴와 대항정당의 사회균열 동원전략」. 『한국정치학회보』 35권 4호, pp. 317-335.
- 최정욱. 2007. 「인도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정당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노트」. 『국제지역연구』 16권 4호, pp. 21-44.
- Banks, Arthur S., Thomas C. Muller, and William R. Overstreet, eds. 2005.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2005-2006*. Washington, D. C.: CQ Press.
- Brass, Paul R. 1994. *The Politics of India since Independ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dda, Maya. 2000. *Building Democracy in South Asia: India, Nepal, and Pakistan*.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Chandra, Kanchan. 2004. *Why Ethnic Parties Succeed: Patronage and Ethnic Head Counts in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tterjee, Partha. 1997. *State and Politics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Chhibber, Pradeep K. 2001. *Democracy without Associations: Transformation of the Party System and Social Cleavages in India*.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hhibber, Pradeep K. and Ken Kollman. 2004. *The Formation of National Party Systems: Federalism and Party Competition in Canada, Great Britai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hibber, Pradeep K. and John R. Petrocik. 1989. "The Puzzle of Indian Politics: Social Cleavages and the Indian Party Syste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2). pp. 191-210.
- Cox, Gary W.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Comment on 'Japan's Multimember SNTV System and Strategic Voting: The 'M+1' Rule and Beyond.'"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pp. 237-239.
- Diwakar, Rekha. 2007. "Duverger's Law and the Size of the Indian Party System." *Party Politics* 13(5). pp. 539-561.
-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http://www.eci.gov.in/>.
- Frankel, Francine R., Zoya Hasan, Rajeev Bhargava, Balveer Arora, eds. 2000. *Transforming India: Social and Political Dynamics of Democrac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Hardgrave, Robert L., Jr. and Stanley A. Kochanek. 2000. *India: Government and*

- Politics in a Developing Nation*. Forth Worth: Harcourt Colledge Publishers.
- Hasan, Zoya, ed. 2002. *Parties and Party Politics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Politics and the State in India*.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Jalal, Ayesha. 1995.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South Asia: A Comparative and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yal, Niraja Gopal, ed. 2001. *Democracy in India*.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Kohli, Atul. 1990. *Democracy and Discontent: India's Growing Crisis of Governab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hli, Atul, ed. 2001. *The Success of India's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ir, Peter. 1997. *Party System Change: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hra, Ajay K., D. D. Khanna and Gert W. Kueck, eds. 2003.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Mitra, Subrata K. and V. B. Singh. 1999. *Democracy and Social Change in India: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National Electorate*.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Riker, William H. 1976.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A Reexamination of Duverger's Law." *Comparative Politics* 9. pp. 93-106.
- Reilly, Benjamin. 2006. *Democracy and Diversity: Political Engineering in the Asia-Pacif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 Richard, ed. 2000.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lections*. Washington, D.C.: CQ Press.
- Rudolph, Lloyd I. and Susanne Hoeber Rudolph. 1987. *In Pursuit of Lakshm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ndian Stat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A Framework for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stri, Amita and A. Jeyaratnam Wilson, eds. 2001. *The Post-colonial States of South Asia: Democracy, Development and Identity*. New York: Palgrave.
- Smith, Graham, ed. 1995. *Federalism: The Multiethnic Challenge*. London: Longman.
- Thakur, Ramesh. 1995.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India*. London: MacMillan Press.
- Weiner, Myron. 1989. *The Indian Paradox: Essays in Indian Politic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_____. 1957. *Party Politics in India: The Development of a Multi-party Syste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rategic Voting in India's General Elections: From 1999 to 2004

Jungug Choi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strategic voting in India, using district-level data from the 1996, 1998, 1999 and 2004 general elections. Even though the popular and academic views are not in favor of the idea of strategic Indian voters, this study argues that Indian voters are still affected by plurality rule, in which only a single candidate is elected in each district. That is, they vote strategically. To demonstrate that not all but many Indian voters engage in strategic voting,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 results in all 543 districts of each Lok Sabha election from 1996 to 2004. The results shows, firs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extent of strategic voting in each Indian election except the one held in 1996. Second, the extent of strategic voting continuously increased from 1996 through 1999, before coming to a halt in 2004.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that Congress supporters are more susceptible to strategic voting than any other major party supporters, and thus the Congress is the greatest victim of strategic voting.

Key Words: strategic voting, Duverger's law, political party systems, India, election, SF ratio